

고창군 '국가브랜드 대상'

'황토배기 수박' 7년·'복분자 선연' 6년 연속 수상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2016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수박, 복분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6 국가브랜드 대상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됐다.

농식품 브랜드 부문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7년 연속, 고창 복분자 선연이 6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고창 수박과 복분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고창황토배기 수박은 품질이 우수한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소파형태의 수박출시를 준비하는 등 시장 대응이 뛰어난 점이 인정을 받았다.

또한 고창 복분자 선연은 올해 복분자 특구 지정 연장승인을 받는 등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황토로 이루어진 좋은 토질, 서해안 해풍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화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2016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수박, 복분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산업·지역·문화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상

하고 있다. 시상을 위해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경영성과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후보 브랜드를 선정 후 20일 동안 국내 소비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의 온라인 소비자 조사 분석이 진행됐으며, 브랜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민 임실군수, 소통·현장행정 나서

내일까지 치즈테마파크·재해위험지·임실N과수 6차 산업화사업 등 점검

심민 임실군수는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 현장 찾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했다. '현장행정'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심 군수 지론에 따라 정책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고 바로 직접 뛰며 답답자와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4일,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 심 군수는 지난날 특구로 지정된 임실N치즈·낙농특구의 특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파급효과 창출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과 연관사업 발굴

을 위해 현장토론을 실시했다. 이어,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임실N 치즈축제 준비상황 점검과 더불어, 전라북도 동부관광발전사업과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촌관광 및 농·식품 6차 산업화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현장행정에 나선다.

5일은 범정부적 추진사업인 '2016 국가안전대진단'에 발맞춰 재해위험 저수지 및 하천 정비 사업장을 방문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조하고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행정 마지막 날인 6일은 함께하

는 희망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인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증합단지 기반구축'과 관련된 임실N과수 6차 산업화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관리의 필요성과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심민 군수는 "이번 현장행정은 직접 발로 뛰며 내실 있는 현장소통을 진행하고 사업성과 점검에 의미가 있다"며,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장류체험관, 수학여행 최적지 급부상

3~5월 45개 학교 3800여명
3월말까지 체험숙박객 1400명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리모델링·체험 강화 등 영향



순창 장류체험관이 시설 리모델링과 토마토고추장소스떡볶이 요리 등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전국의 수학여행단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순창 장류체험관이 시설 리모델링과 토마토고추장소스떡볶이 요리 등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전국의 수학여행단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방문객과 4월 5월 예약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규모가 45개 학교 3,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00여명이 늘어난 숫자이며, 5월 이후 수학여행단 예약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올해 장류체험관의 수학여행단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반인까지 포함한 지난 3월말까지 체험 숙박객은 1400여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가 증가했다.

이처럼 장류체험관의 수학여행단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군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장류체험관 객실을 리모델링해 시설을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추고 토마토고추장을 활용한 떡볶이체험 등 장류요리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장류체험관을 홍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3월에는 부산·대구교육청과 부산지역 여행사 방문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생활과학고교 방문 등 발로 뛰는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도 큰 몫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과 1일에는 거제 육포중학교 수학여행단 학생 100여명과, 청주 금천고등학교 학생 180여명이 장류체험관을 방문했다. 이날 장류체험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고추장과 인절미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활발한 웃음을 지었다. 또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에 와서 직접고추장을 담그며 전통발효에 대해 배워간다는 가족들과 함께 또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년 후에 내가 쓴 엽서를 받아보게 되는 '느린우체통'과 '고추장 3행시'를 지어보는 특별한 이벤트에도 높은 호응을 보였다.

또한 같은 날 방문한 특별한 체험객도 있었다. 도내 14개시군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장류체험관을 방문해 장

류체험과 숙박을 하면서 순창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경업 장류사업소장은 "순창군이 직접 개발한 토마토고추장소스로 떡볶이를 만드는 장류요리를 개발하면서 체험객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장류체험관에서는 수학여행단 유치,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체험학습 일번지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매년 2만여명이 찾는 장류체험관은 2008년 11월 개관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순창군의 대표적 브랜드 파워인 전통고추장의 우수성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지리산허브밸리, 손님맞이 만전

철쭉제 이전까지 허브 식재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의 온산을 뒤덮은 분홍빛의 철쭉을 만끽하고자 찾아오는 전국의 40여만 방문객과 등산객 등 상춘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생식물환경공원 13만여㎡와 허브테마파크 15만여㎡를 비롯한 총 28만여㎡에 대하여 2016년 철쭉제(04.23.~05.22.) 이전까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먼저 겨우내 묵었던 찌꺼기를 털어내는 각종 시설물들의 대청소 및 제조작업을 시작으로 묘묘장에서 관리하던 임파센스, 메리골드, 팬지, 비올라 등 초화류와 라벤더, 제라늄, 산토라나 등의 허브를 일헝광장을 비롯한 허브밸리 일원에 새로이 5만여 본을 이식 파종하여 구역이 형성되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허브밸리 공원에는 총 35만여 본의 초화류와 허브가 철쭉제를 시작으로 비래봉 등 산재와 허브밸리 탐방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남원시는 허브밸리를 전시, 체험, 치유, 명상 휴양의 최적지로 재탄생시키고자 중앙지역에 허브복합토피아권을 건축하고, 현재 허브의 역사와 종류, 효능,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부 전시와 허브의 치유, 힐링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휴식이 있는 식물원 설치사업

을 한창 진행하여 준공 막바지에 이르러 급근 하반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랑과 허브를 테마로 하여 공원 상부에는 프로포즈 토퍼어리와 각종 조형물을 배치한 자생허브공원, 놀이와 즐거움으로 힐링을 경험하는 허브힐링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중간지역에는 겨우내 비래봉 겨울 눈꽃축제 행사를 치렀던 눈썰매장을 가족간의 웃음과 추억이 있는 시계절축제장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한편, 공원 최하부지역에는 보다 시원하고 탁트인 허브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약 6만㎡의 체합농원에 초화류 및 허브를 활용한 포토존을 계획 시행 공사 중에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원시는 지리산허브밸리에서 봄에는 캐모마일, 팬지, 비올라 등의 허브 향기와 비래봉 철쭉제, 여름에는 라벤더 향기와 지리산의 시원한 물줄기, 허브 축제를 즐기며 가을에는 감국, 동국, 구절초 등 국화축제, 겨울에는 비래봉 설경 감상을 위한 등반과 눈꽃축제를 개최하여 연중 내내 손님들이 지리산이 품은 허브향기 속에 흠뻑 젖어 마음을 치유하고 축제를 즐기도록 지리산허브밸리가 명실공히 전국 최대의 허브와 힐링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장류원료 생산·유통 장려금 지원... 5월20일까지 접수

순창군이 올해 장류원료재배 지원사업 비로 군비 19억원을 확보해 생산유통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류원료재배 지원사업비는 품질이 우수한 지역의 고추와 농공을 장류제조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우수한 장류제품을 만들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9억원 규모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고추의 경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내에 밭 1구분 없이 1,000㎡(300평) 이상을 재배하는 농민이다. 생산장려금으로 ha당 150만원의 지원한다.

콩의 경우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 내에 밭(논)인 필지에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민이다. 생산장려금으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유통을 하던 유통 장려금으로 고추는 ha당 50만원, 논콩은 ha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5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과 수매결과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순창은 장류산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1차산업의 농업과 2차 산업인 장류산업,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융합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류원료재배 지원사업은 농민과 생산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류제품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2015년에 고추는 1,267농가 278ha에 5억5,600만원을, 논콩은 680농가 387ha에 10억7,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927농가에 16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추시 및 논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장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군, 강진·신덕면 일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

임실군은 강진면과 신덕면 일대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0억원의 투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 주민 불만사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취지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4월 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이 뒤쳐진 강진면 학석, 하필 신기마을 진입로 확보사업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신덕면 수천, 지장 하촌 중촌지구 마을안길 정비를 실시해 환경정비 및 주민안전장 확보에 나선다.

심민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임실군, 참가 신청 접수 중...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진행

임실군은 문화유산 체험과 전통문화 계승의 일환으로 '2016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어이 유생(儒生)! 유생(儒生)!'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참가자들이 유생복을 입고 향교마당에서 농악·농음을 배우고 왜가리와 멸종 위기종인 임실 납자루 등 자연생태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우수에서 나온 치즈체험, 도깨비 탈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세대간의 소통·공유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35사단 인성교육주간에 맞춰 100여명의 장병들이 첫 프로그램에 참가해 '상대방의 존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결혼사에 남자가 어느 방향에 서는지 등을 체험했으며, 자기만의 도자기 만들기 및 치즈체험도 진행해 호응도가 높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향교가 지역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진행되고, 5월과 6월에는 1박 2일 동안 한옥 민박체험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아카데미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chaoutreach.kr>) 또는 담당자(☎63-248-3177)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선관위, 정책선거·투표 캠페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창읍성 일대에서 정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고 정책선거 및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봄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홍보용품 배부, 위원회 캐리커처 인형 및 포토존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관광객 등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표하는 다짐에서 서명부를 작성하였고 깨끗한 선거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인증샷을 찍어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